



#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悅親心  
독서가 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惜寸陰  
면이 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徒自悔  
노의 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苦駸駸  
두 변 세 월 고 침 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贏金  
유자만영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 둔촌 선조 서세 639주기 불천위제 성대히 봉행



2026년 7월 19일 (음력 6월 6일) 10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추모재에서는 둔촌(諱 集) 선조 서거 제639주기 불천위제(不遷位祭)가 엄숙히 봉행(奉行)되었다.

여름철 낯은 날씨를 염려하여 앞 마당에 천막 6개를 미리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당일엔 다소 흐리고 후덥지근한 날씨였으나, 제례를 봉행하는 후손들의 정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10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올해도 둔촌 선조의 사위 집안인 강릉유씨 대종회에서 유영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덟분이 참여하여 제례의 뜻을 더욱 깊게 하였다.

제례 봉행 분정은 초헌은 첫째 아드님댁을 대표하여 사인공파종회 재래 회장, 아헌은 사위댁인 강릉유씨 대종회 유영석 회장, 종헌은 셋째 아드님댁을 대표하여 목사공파종회 춘신 회장이 헌작

하였다.

제례의 집전은 대종회 만재 부회장이 독축을, 종성 前 부회장이 집례를 맡았으며, 경기남부청장 년회가 집사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제례는 후손들의 정성과 유관 문중의 각별한 관심속에 무사히 마무리 되었으며, 둔촌 선조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강릉유씨(江陵劉氏) 유창(劉敞)은 어떤 인물인가?**  
유창의 초명은 유경(劉敬), 자는 맹의(孟義) (혹은 태화太和), 호는 선암(仙庵)이며, 시호는 문희(文僖)입니다. 1352년(공민왕1)에 태어나 1420년(세종2) 세상을 떠났습니다.

○ 과거급제와 관직: 1371년(공민왕 20)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학유가 되었고, 문하부의 문서를 기록 관장하는 문하 주서에 보임 되었습니다.

이후 1375년(우왕1) 통례문지후를 거쳐, 전공

좌랑·예의·군부정랑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 조선 개국공신 : 1392년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에 책록 되었으며, 특히 이성계와 절친하여 측근에서 늘 학문을 강론해 주는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개국공신 2위에 올라 옥천군에 봉해졌고, 예문관 대제학을 지냈습니다.

○ 세자이사 및 진봉 : 이후 판공안부사 등을 지낸뒤 1413년 세자이사가 되었고, 1416년 옥천부원군에 진봉 되었으며, 1420년 세종대왕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 유창은 고려 말 ~ 조선 초 격동기에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힘을 보탠 개국공신이자, 이후 강릉유씨의 실질적인 증시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강릉유씨 가문에서는 유창을 대표 인물로 꼽습니다.

## 2026년도 광주이씨 모범종인·효열(부)상, 특별장학생 시상식 개최 - 총 70명 수상 승조돈묵과 효행, 인재양성의 뜻 기려

대종회(회장 주영)는 지난 7월 19일 11시 (음력 6월 6일), 삼복 더위와 장마속에서도 종중의 발전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2026년도 시상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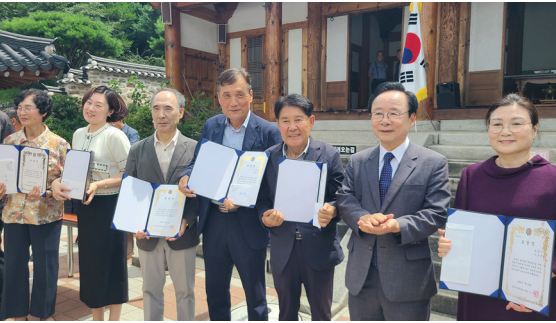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주영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총회공·관찰사공종회, 10개 지파종회 회장단 및 종직자, 그리고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종중 발전과 전통 계승, 효행 실천,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에 귀감이 된 총 70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수상분야는 각각 특별상 4명, 모범종인 13명, 효열인 13명, 특별장학생 40명이다. 특히 헌신과 봉사로 종회를 빛낸 이들에 대한 공로 포상이 있었다.

특별상에는 광원군파종회에서 수년간 종회를 위해 헌신해온 前 용철 회장에게 주어졌고, 대종회에 다년간 재직하면서 소임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인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와 부상을 前 용두 상임부회장, 前 주병이사에게 수여하였다.

특별공로패에는 성남문화원 前 김정진 사무국장에게 수여되었다. 김국장은 둔촌 선조 및 후손



묘역이 경기도 문화재 및 기념물로 지정되어 향토 문화의 중요한 터전으로 자리 잡는 데 앞장선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시상하였다.

주영회장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종인간의 화합과 숭조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6년도 광주이씨 모범종인, 효열(부)상, 특별장학생 수상자 명단

－ 특별상 총인원 : 4명(표창패 2, 공로패 2)

| 지파    | 성명       | 추천 사유                                                                     |
|-------|----------|---------------------------------------------------------------------------|
| 광릉부원군 | 이용두(표창패) | 대중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 정신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종친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크게 기여함. |
| 문경공   | 이주병(표창패) | 대중회 연혁집편찬위원 및 문화이사로 재임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 ‘대중회 100년사’ 발간 등으로 문화분야 업무에 크게 기여함. |
| 광원군   | 이용철(표창패) | 도정공종회 및 광원군파종회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도정공종회 여수지역 종친회 재건 등 숭조 사업에 기여함.              |
| 성남문화원 | 김정진(공로패) | 성남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둔촌선조 및 후손들의 묘역을 경기도 기념물 및 성남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데 기여함.        |

－ 모범종인 총인원 : 13명

| 지파    | 성명  | 추천 사유                                                                           |
|-------|-----|---------------------------------------------------------------------------------|
| 사인공   | 이익래 | 제례행사시 교육 및 주관, 사인공종회 역사에 대한 산 증인이며, 문중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모든 종인의 귀감이 됨.             |
| 광릉부원군 | 이종권 | 종회 산하 화수회에 매달 일정 금원을 발전기금으로 출연, 종친 간 돈독 각 공계 종인들과도 유대를 돈독히 하며 모든 종인의 귀감이 됨.     |
| 문경공   | 이종건 | 산소관리, 선조님 시제 등 종회관계 등 모든 일에 솔선수범, 종원상호간의 친목 및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등 종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음.   |
| 문경공   | 이양수 | 문경공종회, 동고종회, 찬성공종회, 한남군종회 등 종회 종직을 맡으면서 모든 종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종회발전에 크게 기여함.           |
| 광천부원군 | 이승재 | 조상송배와 종중화목에 앞장서고 종친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젊은 종원들의 참여를 독려, 지원하는 모습이 모두에게 귀감이 됨.           |
| 광원군   | 이정재 | 첨지사공종회 회장, 지종회인 도정공종회 임원, 광원군파종회의 감사 및 광원군파종회의 부회장등을 역임, 종회발전에 기여함.             |
| 광원군   | 이용관 | 종원들과의 유대관계가 좋고, 종회에서 주관하는 시제 때마다 제기, 제물준비와 이동, 뒷풀이까지 봉사함으로서 종인들의 귀감이 됨.         |
| 좌의정공  | 이기순 | 수년간 본문 자문위원과 화수회장직을 수행, 광이문예를 조직, 출판하고 일가화친, 선조현앙을 솔선수범해 광주이씨 위상을 높임.           |
| 참판공   | 이찬래 | 장학원(회 상) 오강문중 종회장 및 대의원으로 활동, 재실 옆에 식당 및 휴게실을 완공하여 향사 및 재실관리에 크게 공헌 함.          |
| 좌통례공  | 이수덕 | 종인들과의 관계유지 및 종회업무 처리, 칠곡종회 발전을 위해 좌통례공종회, 관찰사공종회, 대중회 등 상위종회 발전에도 기여한 공이 큼.     |
| 좌통례공  | 이승재 | 조상송배와 종중발전을 위해 헌신, 17년간 묘막에 거주하며 시제를 정성껏 봉행, 회산종중 묘역을 품위 있는 가족공원으로 조성하여 위상을 높임. |
| 문숙공   | 이형래 | 유교사상이 투철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문중의 화합을 위하여 활동하며 모범을 보이고 지역활동에도 공로가 큼.             |
| 목사공   | 이재구 | 목사공종회에서 몇 해 동안 시제 준비는 물론 보은 문중에 어려운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 종임임.                        |

－ 효열인 총인원 : 13명

| 지파    | 성명  | 추천 사유                                                                           |
|-------|-----|---------------------------------------------------------------------------------|
| 사인공   | 이난숙 | 100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반찬, 빨래, 집안청소, 병원동행, 산책동행 등 종회행사에도 직접 모시고 다닌 참된 종인.        |
| 광릉부원군 | 강자연 | 바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제주도에서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신 시부모님을 찾아 정성을 다해 수발하고 있는 효부.           |
| 문경공   | 이종서 | 현감공종회 종사를 맡아 모범을 보인 종인, 아버님 임종까지 병 수발하고, 본인은 폐암 및 뇌종양에 걸려 항암치료를 하고 있음.          |
| 문경공   | 강숙희 | 병환의 시모님 대소변을 받는 등 23년간 병수발을 들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 온 참된 며느리.                |
| 광천부원군 | 심영희 |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봉양, 38년이라는 긴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참된 효도의 모습을 보임.              |
| 광원군   | 박재임 |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오랜 세월 모시며 가족의 안녕을 도모, 헌신적인 봉양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본 받아야 할 귀감으로 평가 됨.       |
| 광원군   | 신옥순 | 오랜 세월 시부모님을 모시고, 내조와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 왔으며, 수년 전부터 남편의 암 진단 투병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음.       |
| 좌의정공  | 이도윤 | 두 아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고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서예를 지도하며 타의 모범이 됨.           |
| 참판공   | 김민서 |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 가정의 화목과 내조,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이웃의 칭송이 자자함.             |
| 좌통례공  | 김희숙 | 91세된 시어머니를 37년간 모시고, 3대가 한 집안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며, 시어머니께도 소홀하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펴 드림. |
| 좌통례공  | 이정숙 | 시어머니를 35년간 모시면서, ‘살아가실 때 더 챙겨 드리고 일상의 담소를 나눔이 효행의 근본’ 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모심.        |
| 문숙공   | 이명순 | 부모님 공경,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행, 일족들에게도 화합함으로서 항상 효를 지역사회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범적인 활동을 함.           |
| 목사공   | 이순자 | 집안의 제사 및 명절 차례를 40여년 동안 모셔 왔고, 큰 며느리로 집안 및 친척간의 크고 작은 일에 참석하여 화합 및 협력에 기여함.     |

특별장학생 총인원 : 40명(중 7명, 고 9명, 대 24명)

| 지파    | 성명  | 학적        | 추천 사유                                                                      |
|-------|-----|-----------|----------------------------------------------------------------------------|
| 사인공   | 이하정 | 유가중 1     | 학교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광주이씨의 자긍심으로 꿈을 키워 가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
| 사인공   | 이준수 | 유가중 1     | 타의 모범이 되는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열심인 학생으로 광주이씨의 자긍심을 키워 훌륭한 인재가 될 학생.                 |
| 광릉부원군 | 이중서 | 중앙대 2     | 디지털콘텐츠공학과 예술의 융합으로 컴퓨터 예술 IT 소프트웨어 핵심개발 등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           |
| 광릉부원군 | 이윤재 | 서울대 4     | 서양 세계 문화권 변천과정을 연구하면서 부전공으로 고전문헌학을 공부하는 학생임. 동서고금의 역사학자가 되기를 응원함.          |
| 광릉부원군 | 이에서 | 효자고 3     |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모범학생으로 표창을 받은 모범적이고 진취적이며 학업에도 열중한 학생.                        |
| 광릉부원군 | 이주윤 | 신기중 3     | 학업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이 방정하고 진취적인 성격으로 특기가 공예이며 프로듀서를 꿈꾸는 모범적인 학생.          |
| 광릉부원군 | 이규현 | 연무중 2     |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에 모범적인 학생. 또한 학업성적도 우수하며 통계활용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함.                  |
| 문경공   | 이승후 | 삼육보건대 1   | 고교시절부터 지금까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면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장래가 기대되는 학생.                       |
| 문경공   | 이경민 | 세명대 2     | 각종 종사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지역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문중의 리더가 될 인재.            |
| 문경공   | 이연우 | 경북대 3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선조님에 대한 숭고애친 정신이 투철하고 선대묘소 순례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 문경공   | 이용인 | 남원용성고 3   | 집에서는 효자이고 학교에서는 모범학생이며 선조님의 뜻을 유지, 계승하는 부친의 뜻을 받들어 광이를 빛낼 수 있는 학생.         |
| 문경공   | 이정재 | 전주영성고 3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선조님에 대한 숭고애친 정신이 투철, 가족이 남원지역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됨.        |
| 문경공   | 이주현 | 서일대 3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선조님에 대한 숭고애친 정신이 투철, 선대묘소 참배 순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 문경공   | 이주희 | 삼육보건대 3   | 평소 근면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정진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학생.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심이 깊은 학생.   |
| 광천부원군 | 이주호 | 서경대 3     | 전학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만기 제대 이후 자기개발에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     |
| 광천부원군 | 이용재 | 고려대 3     | 성실한 학업태도와 뛰어난 탐구력을 갖춘 모범적인 인재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며 성실한 태도로 타의모범이 되는 학생.           |
| 광원군   | 이수민 | 홍익 디자인고 2 | 평소에 예의바른 성품을 가진 학생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며 품행이 올바른 학생.                  |
| 광원군   | 이태경 | 범박고 3     |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하여 학교에서 노력하는 학생으로 모범적이며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고 형제우애가 각별함.       |
| 광원군   | 이준혁 | 건국대 4     |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학업에 매진, 수의학도로 학과 성적이 우수하고, 동기 및 선후배 사이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학생. |
| 광원군   | 이채원 | 전남대 3     |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조상에 대한 숭조정신이 남다르고 학교내에서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학업에 충실한 학생.         |
| 광원군   | 이소정 | 남수원중 3    |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고 아우들에게는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학교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 광원군   | 이정환 | 한국기술교육대2  | 부친을 통해 종친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등 광주이씨 조상들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는 학생.                          |
| 좌의정공  | 이성환 | 군포중앙고 3   | 학교생활은 물론 우수한 성적과 명문의 후손으로 타인의 칭송을 받아 광이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학생.               |
| 좌의정공  | 이재용 | 수원대 3     | 부모의 영향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하고, 학교생활은 물론 우수한 성적, 명문 후손으로 타의 모범적인 학생                  |
| 좌의정공  | 이민영 | 울랑중 1     | 부모가 지역사회 봉사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성장하였고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범적인 학생.                |
| 좌의정공  | 이준용 | 단재고 1     | 학교생활은 물론 우수한 성적과 명문의 후손으로 타인의 칭송을 받아 광이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장래가 기대되는 학생          |
| 참판공   | 이주환 | 세종대 4     | 학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며 매 학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인재로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큰 학생         |
| 참판공   | 이서연 | 연세대 1     |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향후 장래가 촉망되어 광주이씨를 빛낼 인재.              |
| 참판공   | 이주석 | 이천고 1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우간 친화력이 좋으며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사일도 잘 도우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매사에 모범적인 학생.        |
| 좌통례공  | 이승민 | 영남대 4     | 학교생활을 성실한 자세로 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 예의 바른 행동으로 많은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는 학생.                |
| 좌통례공  | 이아인 | 성균관대 2    | 학교생활을 성실한 자세로 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남달라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     |
| 좌통례공  | 이중주 | 동국대 2     | 학업에 대한 열의가 남달라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                           |
| 좌통례공  | 이건희 | 건국대 1     | 학교생활을 성실한 자세로 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 |
| 좌통례공  | 이범수 | 대진대 3     | 학업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뛰어나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
| 좌통례공  | 이윤하 | 우송고 2     | 학교생활은 물론 우수한 성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                              |
| 문숙공   | 이효정 | 홍익대 3     | 학교생활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의바른 태도로 주위의 칭찬이 자자한 학생.            |
| 문숙공   | 이다은 | 수성대 1     |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사회에 나가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로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                  |
| 목사공   | 이영훈 | 경상국립대 3   |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교육자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자금을 책임지는 건실한 청년.        |
| 목사공   | 이승우 | 해누리중 3    | 학교생활을 성실한 자세로 하고 있는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 목사공   | 이재균 | 목원대 4     | 평소 성실하고 바른 품행으로 주위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학업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뛰어난 학생.                     |

## 대종회 부회장·감사·지파 종회장 유적지 탐방



대종회(회장 주영)는 7월 1일(토) 대종회 부회장·감사·지파·종회장과 들과 선조의 숨결을 느끼고 종원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문화 탐방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정은 영주 부석사에서 시작되었다. 문

화 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들으며 무량수전을 비롯한 고풍스러운 경내를 관람하였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듯 지역 별미인 산채정식으로 풍성한 오찬을 즐기며 정담을 나누었다.

이어 소수서원으로 이동하여 최초의 사액서원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되새겼다. 특히 한음 상공의 영정을 친견하고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문의 금지와 선조들의 학문적 깊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코스인 문경새재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 속 드라마 세트장을 둘러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을 만끽했다.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주막에 둘러 시원한 막걸리 한잔으로 여정의 피로를 풀고 친목을 더욱 두텁게 하였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안전하게 상경하여 따뜻한



저녁 식사를 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종친간에 정을 나누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득 채운,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뜻깊은 하루였다.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제15회 둔촌 백일장 개최



- 일시: 2026년 7월 25일(토) 오전 10시
- 개최장소: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
- 참가대상: 초·중·고 학생 및 일반성인 ※기성작가는 제외
- 참가분야: 운문(시·시조), 산문(수필)
- 글 제: 개최 당일 발표
- 참석현황: 신청: 824명 · 초등부: 206명 / 청소년부: 231명 / 일반부: 387명
- 작품심사: 2026년 7월 27일(월) ~ 28일(화) / 강동문화원 사무국

- 수상자 발표: 2026년 7월 31일(금) 17시 강동문화원 홈페이지
- 시상식: 2026년 10월 예정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 작품집 발간: “제15회 둔촌 백일장 수상작품집” 1,000부 발간 예정
- 참석내빈
  - 이수희 강동구청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
  - 이해식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 힘 강동갑 당협위원장
  - 광주이씨대종회 이주영회장, 이양재 총무이사
  - 강동구시의원, 강동구의원 및 문화원 임원 등

## 한국족보백서 편찬보고 및 학술 심포지움

-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 13:30
- 장소: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참석자: 전국 60개 문중 대종회 200여명
- 인사말: 이주영 추진위 상임대표

존경하는 학계와 문화계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문중·종중 대표자와 관계자 여러분. 오늘 ‘한국족보백서 발간계획 발표 및 학술심포지움’을 통해 여러분의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 ‘한국족보백서’ 발간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1년동안 한국 고유의 족보 문화를 인류 보편의 기록유산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족보의 현황을 조사하고, 여러 문종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우리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매우 뜻깊은 문화유산 보

존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족보백서’는 우리나라 족보 문화의 역사와 가치, 현황과 미래 비전을 집대성하는 최초의 종합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기록문화를 온전히 전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심포지엄 역시 족보의 역사적 가치와 기록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 족보가 세계속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학문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임대표로서 이 역사적인 여정에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기록문화를 다음 세대와 세계에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연구자와 백서편찬위원, 그리고 각 문종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난 1년의 소중한 성과가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한국족보백서 발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향한 여정에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족보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대중회 단신

### ■ 봉은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계획 구성(안) - 합동 실무 회의



#### 회의 참석

- 일시: 2026 7월 15일 (수) 14:30
- 장소: 강남구 삼성동 160-18번지 수도빌딩 5층
- 참석자: 대중회 주영회장 외 임원 4명
  - 총괄기획 이수정 대표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심재민 팀장, 김성연 주무관)
  - 다보건축 (장현수 이사, 최재민 과장)
  - 이스트아이그룹 (이지원 대표, 송남이 팀장, 김승은 대리)
  - 성우 이앤티 박경일 이사

#### 회의 내용

- 회의목적 : 지원자문단 및 MP 회의 결과 반영 조치 계획 논의와 자문
- 종합의견 :
  - 조치계획(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이 합의, 금회 계획안으로 시 지원자문단 자문요청 등 진행.
  - 향후 절차 진행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지속적 고려 필요.
    - ▶ 효율적 건축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규모의 공개공지 및 용적률 인센티브 등 검토 필요.
    - ▶ 인접 부지 매도의사에 대해 최근 시점 기준으로 재확인 절차 진행 필요.
    - ▶ 주변여건 및 대상지의 차별성을 고려한 적정범위의 미디어파사드 조명 연출에 대해 강남구와 조율 필요.

**향후 일정 :** 7월 말 ~ 8월 초 서울시 지원자문단 회의 상정 목표

### ■ 성남문화원 방문



#### 회의 참석

- 일시: 2026년 7월 16일 11:00
- 장소: 성남문화원 원장실
- 참석자: 대중회 주영회장, 주홍부회장, 용문 재무이사, 종덕 문화이사, 문화원 김대진 전원장, 방영기 원장, 허지연 국장, 윤규상 부장, 김미경 과장.

#### 회의 내용

- 둔촌선생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규모와 내년도 성남시 예산 편성 건

#### 회의 결과

- 성남문화원 주관 “2027년 둔촌 예술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를 방문하기로 함.

### ■ 대중회 전자족보편찬위원회, 규약개정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시: 2026년 7월 3일(수) 11:00
- 장소: 대중회 지하회의실
- 합동 임명장 수여 후 상견례 오찬
- 각 위원회별 Tea Time.

대중회는 전자족보편찬위원회와 규약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뜻깊은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원 간 상견례와 오찬을 함께하며 문종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은 송조돈목의 정신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중회는 이번 편찬 및 개정 사업을 통해 문종의 역사 보존과 발전적 운영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 제1회 전자족보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10:30
- 장소: 대중회 지하회의실
- 참석: 주영위원장, 택수부위원장, 종덕간사, 주홍위원, 양재위원, 용문위원, 창수위원(사인공), 승재위원(광릉부원군), 주병위원(문경공), 영래위원(광천부원군), 용인위원(광원공), 규철위원(좌의정), 종현위원(참판공), 종우위원(좌통례), 극래(문숙공) 총 16명 중 15명 참석.

#### 회의 내용

- 전자족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해를 숙지하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 개진되었다.
- 중론은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둔촌 후손 10개 지파별 수단을 통하여 증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위원회는 오류없는 전자족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성공, 실패 사례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숙지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제2회 회의를 2026년 8월 5일(수) 10:30 대중회 지하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지파종회 소식

### 광릉부원군파종회

#### ■ 광릉부원군 (諱 克培) 서세 531주기 불천지위 봉행

광릉부원군파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6년 7월 15일 광릉부원군 선조님 531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무더위와 장맛비가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대종회 주홍 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본 방손이 선조님 부조묘에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밖에도 대종회 양재 총무, 용문 재무이사, 관찰사공종회 형래 회장, 충희공종회 용식 전 회장, 종성 전 대행,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사인공파종회 윤태 부회장, 이봉종회 종민 회장, 정재공종회 덕수 총무이사, 승덕재공종회 상훈 회장, 동고종회 성수 회장, 안성 현감공종회 종태 종인, 삼봉종회 종두 회장, 삼봉종회 성호 전 회장, 사봉종회 석래 회장, 용철 전 회장, 부사공종회 은재 회장, 용각 총무, 도정공종회 종찬 회장, 오봉 종회 근환 회장, 충교 전 회장, 재경화수회 용두 회장, 겔재 수석부회장, 완길 부회장, 종균 감사 이밖에도 충희공·관찰사공종회를 비롯해서 10개 지파 집행부가 참석하였다.

본손에서는 만재 종길 부회장을 비롯해서 도승지공계 장악원 종회 찬수 총무 외 다수 종인, 광명종회 종형 회장 양수 부회장, 대사헌공계 광주 무갑리 종회 주혁 회장, 김포 이언공계종회 주훈 회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주돈 주손, 안성종회 종민 고문, 광주대쌍종회 주신 회장, 복수 전 회장, 부제학공종회 종훈 회장, 종덕 부회장, 참의공계종회 용원 전 회장, 항재 종인, 대전 해주목사공종회 항재 전 회장, 용복 총무이사, 참봉공종회 두영 임원, 별좌공 서산 태안종회 장래 전 회장, 포천 이곡종회 진래 회장, 철래 임원, 종봉 화수회장 그리고 태극기 전도사 주동 종인 내외, 만능 텔런트 종구 종인 등이 참사(參祀)하였다. 한편 안성 현감공종회 성수 종친이 처음으로 불천위에 참석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문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참석자 소개, 만재 부회장 인사, 대종회 주홍 상근 부회장 격려사, 사봉종회 석래 회장 격려사, 종구 텔런트 인사에 이어서 모범종인(윤래, 종민, 두영) 표창과 대종회 전용두 상근부회장에 대한 감사장 전달식이 있었다. 이후 문수 총무이사로부터 광릉부원군 선조님께서 일곱 임금(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을 섬기신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이후 분정에는 삼봉대 영래 총무이사의 집례로 대축에는 본 종회 만재 부회장, 좌·우 집사에는 철래 종경 종철 문재(이봉대)현종이 맡아 수고하였다. 그리고 초헌례에는 본 종회 종구 후손, 아헌례에는 대종회 주홍 부회장 종헌례에는 참판공파 종회 종

성 회장이 각 각 헌작하였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대종회 집행부를 비롯해서 각 지파 종회 회장 및 집행부 참사 종인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종회 도승지공계 장악원 종회(회장 종휘)의 선조님 현양에 깊이 감사드리며 날로 발전을 거듭하기를 앙망(仰望)드린다.

#### 〈행적〉

광릉부원군께서는 1422년(세종4)에 출생하셔서 1495년(연산1) 6월 74세의 일기로 서거(逝去)하시었다. 공께서는 1447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동년 식년시 문과 정과로 급제하시었다 이후 세종조에서 승문원 부정자로 관직을 시작하셔서 홍문관 박사, 성균관 주부, 사헌부 감찰을 역임하셨다 세종께서 승하하고 문종조에 들어 명나라 성절사 겸 찰관의 중책을 띠고 다녀오셨다. 이후 병조 좌랑으로 승진하고 곧이어 병조 정랑으로 승급하셨다.

이후 나약한 문종께서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니 수양대군은 좌의정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을 죽이고(계유정란) 권력을 쟁취하여 대권을 장악하였다. 당시 공께서는 요동치는 정국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은 바 업무에만 소임을 다 하 시던 중 당시 만기(萬機 조정에 여러 가지 일)가 역부족이었던 수양대군은 병조(兵曹)에 젊은 인재가 있음을 발견하고 병조에 관한 모든 일을 공에게 일임하였다. 또한 정국이 어수선했던 틈을 타서 지방의 수령과 진장 수군만호들이 소임을 뒤로 한 체 직위를 남용하여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 수탈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공께서 출정하여 이를 엄정하게 다스리고 군기를 일벌백계로 추상같이 처리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수습하였다.

당시 수양대군은 공을 칭찬하며 장차 도승지 감이라고 하였다. 세조 임금 즉위 1년 판통례문사에 제수되시고 세조2년 아우이신 휘 극감 공과 더불어 좌의공신 3등에 책봉되시고 세조3년 감호관 세조 4년 1월 예조참의 6월 중추원 부사겸 경상도 관찰사, 10월 공조참의 겸 경상도 관찰사 세조 5년 첨지중추원사 겸 경상도 관찰 출적사로 나가시고, 3월에는 광릉군(廣陵君)에 봉군 되시고 7월 병조 참판, 8월에는 예조참판이 되셔서 명나라에 천추사(千秋使)하례 사신으로 다녀오셨다. 이후 10월 한성부윤, 11월에는 경창부윤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세조7년 1월 경창부윤으로 명나라에 성절사(聖節使)사신으로 다녀오시고 7월에는 선위사로 활약하셨다. 한편 이때 동북지방 야인인 여진족이 소란을 피우니 신속주 공의 종사관으로 출정하여 난을 평정하고 돌아오니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그 노고를 치하하고 자헌대부(資憲大夫)경기도 관찰사로 임명하였다. 세조8년 1월 이조판서에 오르 시고 이어서 이조판서 겸 우상대장, 5월 이조판서 겸 충청·전라·경상도 군적 도 순찰사로 나가시고 7월 형조판서 10월에는 예조판서에 제수되셨다. 세조9년 평안도 관찰사로 나가셔서 북변 치안에 전념하시던 중 부친이신 충희공(忠僖公)께서 서거(陰1463년 7월 13일)하시어 정성껏 장례를 모시고 곧이어 모친이신 교하 노씨께서 졸하시어(陰 1465년 1월6일)장례를 모시고 탈상 한 후 임금을 찾아뵈니 세조 임금은 정희왕후와 더불어 내전으로 모시고 친히 술을 따라 주며 지극한 효성을 칭찬하고 그 자리에서 병조판서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제수하였다.

1468년 (세조 14) 세조 임금이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하자 의정부 우참찬으로 승진하셔서 경상도 문배사, 황해도 체찰사, 우참찬 겸 병조판서가 되신 후 예종께서 단명으로 승하(즉위 1468년 9월 -1469년 11월)하고 성종 임금이 즉위하자 당년 8월 정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겸 병조판서로 승진하시고 당해 10월 중국 명나라에 동지사(冬至使)로 다녀오셨다. 성종 2년 좌리공신(佐理功臣 - 성종 임금을 보필하고 정치를 잘한 공적)3등으로 아우이신 삼봉 휘 극증 공과, 좌리공신 4등에 발탁된 사봉 휘 극돈 공 삼형제 분이 좌리공신으로 책봉을 받으셨다. 한편 이후 전라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도민들이 유리걸식 할때 공께서 진휼사(賑恤使)로 나가셔서 도민을 진력 구제하고 귀경하니 임금은 노고를 치하하고 옷 한 벌을 하사하시며 계를 높여 승정대부(종1품)를 가하였다. 이후 9월에는 명나라 북경에 성절사로 가셔서 표문을 배례하고 돌아오셨다.

세조5년 의정부 좌참찬 겸 병조판서, 성종 8년 판중추부사에 오르시고 삼도(충청, 전라, 경상도)에 순찰사로 나가셔서 지방의 군사 업무를 관찰하셨다. 성종 10년 8월 승록대부 영중추부사(정 1품)에 오르시고 10월에는 광릉부원군에 봉군(封君)되셨다. 성종 12년 영중추부사 겸 호조판서, 성종 15년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중추부사 성종16년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에 오르시고 성종 17년 대광보국승록대부 겸 병조판서, 성종18년 대

광보국승록대부 겸 병조판서 광릉부원군으로 활동하였다.

1491년 성종22년 공께서 나이가 70세에 이르시니 벼슬을 사퇴하는 관례에 따라 사퇴를 청하였으나 임금(世宗)은 허락하지 않고 궤장(機杖-의자와 지팡이)을 하사하시며 공을 위로하였다. 성종 24년 1493년 11월 6일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의정부 영의정(議政府 領議政)에 대배(大拜)를 받으셨

다. 1494년 12월 성종임금이 38세의 일기로 승하하여 국상(國喪)을 치루고 난 이후 어린 연산이 즉위하자 왕을 섭정(攝政)한 후 연산1년 1495년 3월 20일 모든 관직에서 휴퇴(休退)하시니 향년 74세였다. 공께서 휴퇴하신 후 3개월 만에 서거하시니 공의 부음(訃音)을 들은 임금은 통탄해 하며 나라의 거울을 잃었도다 하며 애통해 하였고 조정에서는 조회를 중지하고 상가는 모두 철시하였으며 시

골에 까지 가무를 금하고 조의를 표하였다.

또한 빈소에는 조객으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으며 장례 절차는 모두 나라에서 관장하고 비용까지 부담하였다 이는 평소 공께서 관후(寬厚) 인자한 품성과 공덕의 소치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공께서는 광주인(廣州人) 최초로 조선조 43대 영의정에 등극하시었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 씀

## 문경공파종회

### ■ 문경공파 21대 광희 종손의 “문효사 사당 대지 및 문경공 종가 세장지 임야” 기증

2026년 7월 광주이씨 문경공파 21대 광희(光熙) 종손은 선조의 유덕을 받들고 문종의 유산과 전통을 영구히 계승하고자, 수백년 동안 유산으로 전해져 온 문효사 사당 대지와 문경공 종가 세장지(世葬地, 문종이 대대로 묘를 쓰는 선산)를 문경공파종회(회장 종민) 및 문경공파 탄수종회(회장 영희)에 기증하였다.

문효사(文孝祠)는 문경공파 파조이신 문경공(諱克堪, 광성군), 장자인 광양군(諱世佐), 증손인 정효공(諱延慶, 광안군), 5대손인 충장공(諱光岳, 광남군) 4위의 불천지위를 모신 부조묘 사당으로, 충



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64번지 종가의 뒤에 위치하며 대지 약 580평이 문경공파종회에 기증되었다.

문경공 종가 세장지는 문경공 파조님의 장자이신 광양군(諱世佐) 선조님부터 이후 종손들 묘소가 있는 곳으로 선대조 한 분의 묘소도 실전없이 현재까지 19대를 이어져 오는 묘역이며, 웬만한 종가에서는 어려운 일임에도 책임있게 관리를 해 온 문경공파 종가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장소로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152호로 지정되어 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산42-3번지 종가의 옆에 위치하며 임야 약 21,000평이 문경공파 탄수종회로 기증되었다.

특히 문효사 사당과 문경공 종가 세장지는 문경공 파조님과 후대 선조를 추모하고 제향을 이어온 유서 깊은 성역으로, 문종의 정체성과 전통을 상징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기증은 1980년대에 충주 문경공 파조님 묘역 전체를 종회로 기증한 부친(諱柱白)의 유훈을 받들어서, 문경공파 문종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소중한 유산을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문종 공동의 재산으로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고자 하는 광희 종손의 숭고한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광희 종손께서는 “선조께서 물려주신 유산은 후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문종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선조의 유덕을 길이 받들고 숭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회에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뜻을 밝혔다.



이에 문경공파종회와 탄수종회는 종손의 숭고한 결단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기증받은 사당 대지와 묘역 임야를 문종의 귀중한 재산으로 성실히 관리·보존하여 선조의 유덕을 현창하고 후손들의 교육과 제향, 그리고 문종 화합의 터전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문경공파종회 종민 회장은 “광희 종손의 숭고한 의기는 종문을 위한 헌신의 표상이요, 선조의 유덕을 후세에 잇는 큰 공이라 하겠다. 그 아름다운 뜻은 문경공파의 역사와 함께 만대에 전하여 후손들의 귀감으로 길이 빛날 것이다.” 라 하였다.

광희 종손의 이번 기증은 선조를 숭앙하는 정성과 종문을 사랑하는 마음을 몸소 실천한 숭고한 뜻의 발현이라 하겠다. 이는 문종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모범이자 후손들에게 숭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을 일깨우는 귀감으로, 그 고귀한 뜻과 공덕은 광주이씨 문경공파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도록 길이 전해질 것이다.

- 문경공파종회 총무 종환·탄수종회 총무 종우記

## 광천부원군파종회

### ■ 광천부원군파 수원 화수회 伏달임 행사 성료

광천부원군파 수원종회 화수회(회장 완길)는 7월 11일(토) 무더운 삼복더위가 시작하는 시기에 화수회원 및 내빈 등 20명이 건강관리를 위해 伏달임 모임을 인근식당(삼계탕 전문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4명과 초대손님으로 6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광천부원군파종회 전회장



이신 성호회장과 현재 부회장이신 종준회장과 재경화수회 윤태총무와 그리고 청장년연합회장이신 종우회장이 참석하시어 격려와 응원의 인사말씀을 하였다.

회장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전통 세

시풍습으로 삼복에 몸을 보하는 음식을 먹고, 시원한 물가를 찾아가 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냈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우리의 전통 풍습으로 오랫동안 지켜온 것이며, 회원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회의 서류를 통하여 화수회 하반기 운영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폭염 예방책으로 자외선차단제(썬크림)를 참석하여 주신 분에게 나누어 주었고, 더 많은 대화를 위해서 인근 커피전문점으로 자리를 옮겨 다양하고 유익한 담소를 나누고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하루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 광천부원군파 수원종회 화수회장 완길記

지난 7월호(422호) 10면 바로 잡습니다.

지난 7월호(422호) 10면 둔촌청소년문학상 <고등부 대상> 김연재 학생의 <둔촌 선생님을 세상에 외치다> 내용 중 마지막 문단 끝에서 9번째줄 <친구 백원도>를 <친구 최원도>로 바로 잡습니다.

## 좌의정공파종회

### ■ 좌의정공파종회, 중복 맞아 복달임 행사 개최...

“역사 속 한음을 함께 배우고,  
종인 간 화합 다져”

좌의정공파종회(회장 근환)는 7월 25일 중복을 맞아 양평에 있는 한음 선조의 영정각이자 재실인 쌍송재 옆 부속건물에서 복달임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를 앞두고 장마철의 변덕스러운 날씨로 연기 여부를 고민하기도 했으나, 일정 변경 또한 날씨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맑은 날씨 속에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종인 45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지난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마친 재실(雙松齋)에서 공사 완료를 한음 선조께 아뢰는 고유제를 봉행한 뒤, 재실 옆 부속건물로 자리를 옮겨 본 행사를 진행하였다. 근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종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좌의정공파 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오성과 한음에서 역사 속의 한음으로」를 주제로 한음 선조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보학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종회의 주요 현안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앞으로 종회 운영은 반드시 법과 규약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 화수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무환(23대)을 차기 회장으로, 영환(23대)를 총무로 각 선출하는 등 필요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뒤에는 집행부가 준비한 한방연오리백숙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답소를 이어갔고, 이어 3개 팀으로 나누어 율놀이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의 웃음소리가 재실을 가득 메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종인 간 우애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행사 중 참석한 종인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많은 종인들이 그동안 한음 선조를 해학소설 「오성과 한음」의 주인공이자 훗날 영의정을 지낸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역사 속 한음 선조의 참모습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음 선조와 좌의정공파 선조를 비롯한 우리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배우는 보학 강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번 행사를 자체 행사로 진행한 것은 우리 지파 종인들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참석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종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 송년회 등도 위 부속건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종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를 마치며 근환 회장은 “무더위와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회는 선조를 현양하는 일과 더불어 종인 간 화합과 돈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좌의정공파 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 좌의정공파종회 회장 근환記

## 좌통례공파종회

### ■ 경무공(諱 宇恒) 선조 서세 305주기 불천위제 봉행



각지파종회장 및 방손 50여 명 참석, 선조의 덕행 기리며 승조돈목을 다졌다.

통제사공종회(회장 형래)는 2026년 7월 4일(토) 오후3시, 경기도 하남시 소재 부조묘에서 경무공(諱 宇恒) 선조님의 서세 305주기 불천위제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봉행에는 지파종회장님을 비롯하여 직·방손 5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선조님의 높은 덕망과 업적을 기리고 종친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례는 다음과 같이 참례하여 전통 격식에 맞춰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초헌관 형래(8대손, 관찰사공종회장), 아헌관: 재석(전관찰사공종회장), 종헌관: 용주(좌통례공종회장), 축관: 용한 현종, 집례: 민재 현종, 집사: 성민, 민래, 용호, 성호 현종.

서로 화합하는 음복의 시간과 감사 인사 제례를 마친 후, 참석한 종인들은 한자리에 모여 음복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였다.

형래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중에도 선조님의 불천위제 봉행을 위해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각 지파회장과 방손 현종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경무공 선조님의 불천위제가 더욱 뜻깊게 봉행될 수 있도록 향축대를 봉헌해 주신 각 지파종회장과 종인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과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분의 가정에 선조님의 음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행장〉

증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행 자헌대부 총융청 총융사 경무공(諱 宇恒) 공의 자는 여구 인조 25년 1648년 8월 11일 출생. 1722년(경종2) 옥중에서 서거하시니 향년 74세였다 좌통례공 7대손이시다. 경무공 휘 우항은 숙종 2년(1676) 병진년 28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평북, 희천, 칠곡, 나주, 영장을 거쳐 통진, 영변, 강계, 수원, 제주, 전라수군 통제사, 경기수사를 거쳐 1701년 총융사에 배수 되시고 한성부 좌 우윤을 거쳐 정유년에 가선대부 기해년에 자헌재부 같은 해 기로사에 들고, 70세 고령으로 정헌대부 지중추부사에 오르셨다. 후일 왕의 계승을 둘러싼 노론 소론 사이에 일어난 신임 사화로 소론의 탄핵을 받아 고금도(완도)로 유배 되었고 노론의 실각으로 투옥된 후 경종 2년(1722)년 무옥사건 신임사화가 일어나 옥중에서 서거하셨다.

임진년에 시호를 경무로 내렸고 정조갑진(1784)년에 왕이 치제를 내렸고, 고종 을축(1865)년에 세사부조 불천위로 명(命)이 내려졌으며, 경인 정월에 영조묘호때 다시 치제가 내려지고 고종 신축에 또 치제가 내려졌다. 치제가 내려지면 왕이 예조에 명하여 가묘와 제구 전담등을 교지와 더불어 내려 받으신 경무공은 국불천위이시다.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 121-1에 위치해 있다.

— 좌통례공파종회 통제사공 총무 대래記

## 2026년도 관정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관정 이종환은 1923년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일본 메이지대학교 경상학과를 2년 수료했다. 그 후 학병으로 끌려가 소, 만 국경과 오키나와를 오가며 사선을 넘나들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일찍이 사업에 투신하여 1958년에는 삼영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창업하여 2023년 101세로 별세하기 직전까지 경영 일선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신 보기 드문 창업1세대 기업인이다. 대한민국의 인류 발전을 위한 1등 인재 육성을 위하여 2000년 6월 28일에 장학을 위주로 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하여 대부분의 재



산을 출연하였다. 결단이 서고는 거칠 것이 없었다. 재산을 정리해서 재단에 넣는 절차를 숨가쁘게 밟아 나갔다.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 건씩 넣을 때마다 내 재산은 줄어 들었지만 내 마음은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 할지 모른다. 그것은 베품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일 뿐이다. 인생은 어차피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또는 '빈손으로 왔으니 아무 것도 채우지 않고 빈손으로 가면 된다', '빈손으로 왔으니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빈손으로 가도 된다' 는 뜻이 아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손을 채운 다음 갈때는 빈손으로 가라' 는 뜻으로 풀이 했다. 나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 이종환 자서전 '정도(正道)'

### 주영회장 축하 전문

존경하는 이석준 관정재단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인공으로 우뚝 선 관정 장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장학금 수여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류의 지정사를 이끌어갈 거대한 가능성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위대한 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노력 끝에 당당히 관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로 자녀들을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관정 장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이 장학금의 의미는 단순한 자금의 지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공수래공수거의 철학으로 살아가시며, "돈은 버는 것은 기술이요, 쓰는 것은 예술이다" 라는 숭고한 신념을 몸소 실천하신 고(故) 관정 이종환 선생님의 혼과 땀이 서려 있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아두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오직 "사람을 키우는 것이 나라를 키우는 길"이라는 일념으로 노벨 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꿈을 가지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을 세우신 그 큰 뜻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장학금에는 여러분이 오직 학문과 진리 탐구에만 정진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되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정 장학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넘보는 첨단 기술의 시대, 동시에 가치관의 혼돈이 극에 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과 기술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다루는 인간의 '도덕적 품격'과 '정신적 깊이'입니다. 여러분은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머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른 마음'입니다. 관정 이종환 선생은 생전에 평생 '正道'를 추구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학문적 여정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마주 할 삶의 길 위에서 다음의 가치들을 가슴 깊이 새겨 주기를 당부합니다.

첫째, 정직(Honesty)입니다. 학문적 양심과 자기 자신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진실 앞에서는 당당함이 여러분을 가장 강한 인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째, 순수심(Purity)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세상의 타협에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본연의 순수한 열정과 목적을 지켜 내십시오.

셋째, 이타심(Unselfishness), 즉 이기심을 버리는 태도입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나의 재능과 배움이 사회의 소외된 것을 향하도록 시선을 넓히십시오.

넷째, 사랑(Love)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이 없는 학문은 차가운 흥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성공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장학증서의 정신은 바로 이 도덕적 책임감과 이타적인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위대한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여러분을 든든하게 믿고 지지하는 관정재단이 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관정 이종환 선생의 숭고한 개척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한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받은 오늘의 이 거룩한 사랑을 훗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꺼이 베풀고, 또 그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거인(巨人)들로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장학금 수여를 축하하며, 관정 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재경청장년회 청백리공 묘소 2차 정화작업 성료

재경청장년회(회장 용승)는 7월 19일 오전 7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청백리공 묘소 정화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에는 청장년 전직회장 등 총 11명의 각계지파의 종친이 참여하여 조상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화작업은 묘소 주변을 무성하게 뒤덮은



아카시아 나무와 칩녕쿨을 제거하는 데 집중되었다. 울타리를 넘어와 묘역을 침범한 아카시아는 뿌리째 뽑아내고, 질긴 칩녕쿨 줄기를 하나하나 건어내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 이어졌다. 하지만 참석한 종친들은 저마다 익숙한 솜씨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 탓에 모두가 비 오듯 많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은 땀을 흘렸으나, 조상님에 대한 정성과 봉사정신으로 시종일관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묘역앞에서 종친들은 정성껏 준비한 주과포(酒果脯)를 진설하고 경건하게 예

를 올렸다.

용승회장은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종친이 흔쾌히 참석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묘소 정화작업을 마칠 수 있어 깊이 감사드린다’ 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재경청장년회는 다가오는 한가위를 앞두고 오는 9월 20일, 묘소 정화작업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종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재경청장년회 총무 용세記

## 시조비 인화이씨 묘역 벌초 및 정화작업 실시

경기 남부 청장년회(회장 광재)에서는 지난 7월 12일에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남시 소재 인화이씨 묘역 및 주변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회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각 지역에서 출발해 약속된 시간에 현장에 모였다. 특히 수원 지역 회원들은 오전5시부터 출발하는등 정성을 다해 행사에 참여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약3시간에 걸쳐 벌초와 주변 정리 작업을 진행한 회원들은 쏟아지는 땀과 지쳐가는 체력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묘역을 정성껏 가꾸며 숭조의 뜻을 실천했다. 폭염속에



서도 묘전과 울타리 주변의 정리 작업을 비롯해 정원수 정리까지 말끔하게 마무리하며 조상에 대한 감사와 후손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벌초를 마친 회원들은 자리를 하남 왕뚜껍 삼겹살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나누며 하루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벌초 행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조를 정성껏 모시고 숭조정신을 실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석한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종친간 화합하는 정신으로 더욱 굳건히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 경기남부청장년회 회장 광재記

## 의비(義婢) 연아총(燕娥塚)의 단상(斷想)

광주(廣州)이씨의 시조묘소는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광릉골에 있다. 둔촌할아버지가 고려 공민왕 시절 국정을 농단하던 요승 신돈의 화를 피해 친구인 사간 최원도의 집 다락방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1369년 부친(李唐)이 돌아가셨고, 최원도는 자기 모친인 영천이씨의 묘소 아래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었으며, 그곳이 광주(廣州)이씨 시조(휘 :唐) 묘소로 65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후손들이 잘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시조묘소가 광릉골에 있는 연유와 둔



촌과 최원도의 우정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목숨을 던져 광주이씨와 영천최씨 두 가문의 멸문지화(滅門之禍)의 위기를 지켜준 의비(義婢) 제비(燕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영천땅 도유지 저수지를 지나 광릉골 마을 어귀 작은 언덕위에 잘 단장된 작은 묘지에 연아총(燕娥塚)이라는 묘지석이 있다. 백일홍이 붉게 피어나는 무더운 7월 어느날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장(택동-23대)은 총무(상기-19대)와 함께 연아총을 찾아 제비님의 의로운 행동에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다.

그 시절 제비는 비록 계집종이었으나 어려서부터 영리하여 최원도 부부가 친딸처럼 아꼈으며 제비 또한 상전을 성심으로 모셨다. 둔촌 부자가 신돈의 화를 피해 천곡의 다락방에 숨어지내게 되면서 제비는 어느날인가부터 밥먹는 양이 두 배로 늘어나고 주인마님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꼈

으며, 결국 둔촌부자가 다락방에 숨어 있는 비밀을 알게되자, 이 사실을 천곡의 부인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천곡의 부인은 이 비밀이 탄로나면 두 가문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스스로 혀를 깨물어 말문을 닫아버렸으며, 이 사실을 본 제비는 자신이 비밀을 지키지 못하여 주인마님덕에 화를 미치게 할까 두려워 한 나머지 스스로 죽어서 비밀을 지키고자 뒷산에 올라 자결하였다. 천곡은 제비의 의로운 행동에 감동하여 정성을 다해 무덤을 만들어 주고 연아총이라 이름하였다.

훗날 광주이씨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시월 시조공(휘:당) 세일사를 지내는 날 아침 동트기 전에 가장 젊은 제관을 정하여 제비 묘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올린다. 백일홍꽃이 제비의 마음인양 오래도록 붉게 피어나고 있다.

— 영천 시조묘소 수호관리위원회 총무 상기記

## 재경화수회 7월 월례회의 수도빌딩에서 뜻깊은 만남 가져

재경화수회(회장 용두)는 7월 15일, 삼복더위와 장마철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빌딩 방문 행사를 가졌다. 말로만 무성히 들던 수도빌딩 옥상에 모인 종원들은 기분좋게 기념촬영을 마친 뒤, 곧바로 만찬과 본회의가 준비된 식당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용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궂은 날씨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준 종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종원들의 단합과 화수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포부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문경공파종회 원재 전 대종회 상임부회장은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종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

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가슴속 깊이 감회가 새롭다며 벽찬 소회를 전했다. 뒤이어 원로분들과 각 지파종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모두 소개되었고, 두 신입회원도 인사를 나누며 새 식구를 반겼다. 식당안은 어느새 잔칫날처럼 유쾌한 대화와 호탕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부가 준비한 기념선물이 전달되었고, 종원들은 “9월 월례회 때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는 다짐을 나누며 훈훈한 여운속에 행사를 마쳤다.

— 재경화수회 총무 윤태記

## 묘사(墓祀)와 성묘(省墓)에서의 헌작(獻爵)과 절에 대하여

조상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마음 자체는 모두 같으며, 이를 소중히 여기려는 뜻 또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禮)는 상황과 성격에 따라 그 절차와 격식을 구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일을 주로 행하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모든 의례를 최고 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과연 예에 맞는 것일까?

필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 조선의 예학(禮學)은 오히려 “통일” 보다는 “구분”을 중시하였다. 즉, 제사는 제사답게, 성묘는 성묘답게, 참배는 참배답게 각각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그 격식 또한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묘사(墓祀)는 무덤 앞에서 올리는 정식 제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음력 시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묘소에서 올리는 세일사(歲一祀), 또는 시제(時祭) 등 공식 제례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묘사에는 엄숙함과 일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독축(讀祝), 삼헌작(三獻酌), 분헌(分獻) 등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성묘(省墓)는 살필 성(省), 무덤 묘(墓) 자를 쓰며, 문자 그대로 조상의 묘를 살피고 찾아뵙는다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성묘는 참알(參謁)이나 배알(拜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한식·추석·설 등의 절기에 묘소를 찾아 조상을 추모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참배(參拜)는 참여할 참(參), 절 배(拜) 자를 쓰며, 조상에게 절하여 예를 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평상시 묘소 방문이나 일반적인 인사 등이 포함되며, 그 본질은 제사 자체보다는 추모와 공경의 뜻을 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성묘나 일반적인 참배에서는 무축(無祝), 단잔(單盞), 합동 재배(再拜) 등의 간략례(簡略禮)가 전통 예법의 취지에도 보다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예(禮)는 본래 정성과 공경(誠敬)을 다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지, 형식을 끝없이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선 후기 예학에서도 지나친 의례 경쟁이나 과도한 형식 확대를 경계하는 흐름이 적지 않았다. 한편 조선 시대의 일반적인 관행을 살펴보면 대체로 <표>와 같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례의 절차와 예법을 논

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은, 예의 구분과 전통 예제(例祭, 기일을 정하여 놓고 상례(常例)대로 지내는 제사)의 본래 취지, 격식의 적정성, 그리고 후손들의 현실적 참여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 구분         | 일반적인 형식    |
|------------|------------|
| 불천위제·세일사   | 독축, 삼헌작    |
| 한식·추석·설 성묘 | 무축, 단잔, 재배 |
| 평상시 참배     | 재배 중심      |
| 묘소 순례      | 대부분 헌작 생략  |

특히 지나친 형식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례 자체에 대한 기피와 참여 감소를 초래하여, 자칫 형식만 남고 그 정신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에 대한 예를 올릴 때, 전통 예법 본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오늘날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예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예를 단순히 없애거나 간소화하자는 뜻이 아니라, 각각의 의례가 가진 본래의 의미와 구분을 바르게 세우자는 뜻이라 할 것이다.

— 좌의정공파종회 회장 근환 김

##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고려 말의 포은(圃隱) 정몽주, 목은(牧隱) 이색, 도은(陶隱) 이숭인, 삼은(三隱)과 사상을 교류하며

한시대의 정신적 지주로서 귀감이었던 큰 스승, 둔촌 이집 선조의 고결한 정신을 잇다”

당대의 대유학자이자 충절의 상징, 둔촌 이집 선조의 탄신 7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창의적이고 뜻깊은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 1. 공모 개요

가. 공모명 : 둔촌 이집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슬로건 공모전

나. 공모 주제 :

1) 둔촌 선조의 충정, 효행, 학문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내용

2) 탄신 70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가치를 담은 문구

다. 공모 형태 : 20자 내외의 문구 (한글, 한문, 영문, 기호 등 사용 가능)

### 2. 참여 대상

둔촌 선조를 경모하는 누구나 **(광주이씨 종친에 한하지 않음)**

### 3. 공모 일정

가. 접수 기간 : 2026년 7월 1일 ~ 8월 31일 (62일간)

나. 결과 발표 : 2026년 8월 31일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4. 시상 내역

가.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행사 공식 슬로건으로 활용)

나. 우수상 3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다. 장려상 6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라. 참가상 : 문화상품권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5. 접수 방법

가. 온라인 접수 : 대중회 홈페이지

나. 제출 서류 : 공모전 응모 양식 1부(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홈페이지에서 다운 (슬로건은 1인당 1개 응모 가능)**

다. 접수처 : 광주(廣州)이씨대중회 사무국(이메일, 우편접수, 홈페이지 참조)

### 6. 문의처

• 광주이씨대중회 /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사업회

• 전화번호 : (02)735-1720

• 홈페이지 : gwanglee1720@nate.com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6년 7월 구독 및 찬조

| 이름                                     | 금액     | 주소    | 이름  | 금액     | 주소     | 이름                             | 금액     | 주소     | 이름                         | 금액     | 주소     |
|----------------------------------------|--------|-------|-----|--------|--------|--------------------------------|--------|--------|----------------------------|--------|--------|
| 이용구                                    | 20,000 | 충북 충주 | 이주식 | 10,000 | 경기 성남  | 이은수                            | 10,000 | 경기 군포  | 이덕수                        | 10,000 | 경기 고양  |
| 이종국                                    | 10,000 | 경기 성남 | 이종주 | 10,000 | 경기 안양  | 이주엽                            | 10,000 | 경기 안양  | 이진수                        | 10,000 | 경기 시흥  |
| 이용승                                    | 10,000 | 인천 서해 | 이강수 | 10,000 | 경기 광명  | 이유수                            | 10,000 | 경기 군포  | 이홍수                        | 10,000 | 서울 송파  |
| 이용민                                    | 30,000 | 경기 김포 | 이경수 | 10,000 | 인천 연수  | 이주섭                            | 10,000 | 경기 안성  | 이종국                        | 10,000 | 서울 송파  |
| 이용진                                    | 10,000 | 서울 도봉 | 이주환 | 10,000 | 경기 안양  | 이홍수                            | 10,000 | 서울 금천  | 이종후                        | 10,000 | 경기 동두천 |
| 이태수                                    | 10,000 | 경기 수원 | 이주희 | 10,000 | 경기 평택  | 이종언                            | 10,000 | 경기 안양  | 이진수                        | 10,000 | 경기 하남  |
| 이영미                                    | 10,000 | 광주 서구 | 이병수 | 10,000 | 인천 연수  | 이찬수                            | 10,000 | 경기 군포  | 이일유                        | 10,000 | 경기 광주  |
| 이무환                                    | 10,000 | 경기 수원 | 이종봉 | 10,000 | 경기 여주  | 이현수                            | 10,000 | 경기 광명  | 이종락                        | 10,000 | 경기 하남  |
| 이옥윤                                    | 10,000 | 경기 수원 | 이대수 | 10,000 | 경기 광명  | 이겸수                            | 10,000 | 경기 수원  | 이종욱                        | 10,000 | 서울 중랑  |
| 이현식                                    | 10,000 | 경기 이천 | 이동재 | 10,000 | 경기 안양  | 이주창                            | 10,000 | 경기 수원  | 이창수                        | 10,000 | 경기 군포  |
| 이용성                                    | 10,000 | 경기 고양 | 이주일 | 10,000 | 경기 안산  | 이해수                            | 10,000 | 경기 안산  | 이종인                        | 10,000 | 인천 계양  |
| 이신래                                    | 10,000 | 서울 금천 | 이윤재 | 10,000 | 인천 미추홀 | 목사공파 우윤공계<br>31X10,000=310,000 |        |        | 이종민                        | 10,000 | 경기 성남  |
| 이진수                                    | 10,000 | 서울 동작 | 이인수 | 10,000 | 경기 수원  |                                |        |        | 이양재                        | 10,000 | 서울 은평  |
| 이상우                                    | 10,000 | 전남 여수 | 이종칠 | 10,000 | 경기 시흥  | 이덕재                            | 10,000 | 경기 하남  | 이종호                        | 10,000 | 경기 성남  |
| 이희재                                    | 10,000 | 서울 노원 | 이종모 | 10,000 | 경기 광명  | 이승재                            | 10,000 | 충남 홍성  | 이종화                        | 10,000 | 서울 강동  |
| 이달수                                    | 10,000 | 충북 음성 | 이주용 | 10,000 | 경기 시흥  | 이시재                            | 10,000 | 충부 진천  | 이관수                        | 10,000 | 경기 용인  |
| 광릉부원군파 광명종회(건하공파)<br>49X10,000=490,000 |        |       | 이주홍 | 10,000 | 경기 안산  | 이안재                            | 10,000 | 서울 동대문 | 경남종친회<br>10X10,000=100,000 |        |        |
|                                        |        |       | 이주원 | 10,000 | 경기 광명  | 이종명                            | 10,000 | 경기 남양주 |                            |        |        |
| 이종형                                    | 10,000 | 경기 안양 | 이주성 | 10,000 | 경기 군포  | 이종복                            | 10,000 | 서울 성동  | 이용일                        | 10,000 | 경남 창원  |
| 이응수                                    | 10,000 | 대전 서구 | 이원엽 | 10,000 | 경기 시흥  | 이종선                            | 10,000 | 강원 원주  | 이규현                        | 10,000 | 경남 창원  |
| 이종현                                    | 10,000 | 경기 광명 | 이종술 | 10,000 | 경기남양주  | 이종열                            | 10,000 | 세종 장군  | 이관재                        | 10,000 | 경남 창원  |
| 이종우                                    | 10,000 | 경기 안양 | 이주현 | 10,000 | 경기 시흥  | 이종일                            | 10,000 | 충남 태안  | 이호진                        | 10,000 | 경남 창원  |
| 이효수                                    | 10,000 | 경기 안양 | 이형수 | 10,000 | 경기 광명  | 이종호 A                          | 10,000 | 서울 도봉  | 이종철                        | 10,000 | 경남 창원  |
| 이종강                                    | 10,000 | 경기 광명 | 이종규 | 10,000 | 경기 의왕  | 이종호 B                          | 10,000 | 서울 동대문 | 이종원                        | 10,000 | 경남 창원  |
| 이장원                                    | 10,000 | 경기 광명 | 이태수 | 10,000 | 경기 안양  | 이찬수                            | 10,000 | 경기 화성  | 이종진                        | 10,000 | 경남 창원  |
| 이종상                                    | 10,000 | 경기 광명 | 이주호 | 10,000 | 경기 수원  | 이홍재                            | 10,000 | 서울 송파  | 이종건                        | 10,000 | 경남 함안  |
| 이문선                                    | 10,000 | 경기 광명 | 이종경 | 10,000 | 서울 은평  | 이종찬                            | 10,000 | 서울 은평  | 이종목                        | 10,000 | 경남 창원  |
| 이창재                                    | 10,000 | 경기 수원 | 이주영 | 10,000 | 경기 안양  | 이종팔                            | 10,000 | 경기 성남  | 이장환                        | 10,000 | 경남 창원  |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으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6年 8月 1日

<제423호>

廣州李氏會報

발행인 : 이 주 영

편집인 : 이 주 홍

주 간 : 이 종 덕

발행처 : 광주이씨대종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